박인비, 한 라운드에 골프공 9개 쓴다

박인비에게 궁금한 것들

흠집 안 나면 안 바꿔…헌 공 3개는 연습용
흰옷 징크스? 흰색을 좋아해 즐겨 입을 뿐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하고 돌아온 박인비(27·KB금융그룹). 9일 제주 오라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한 그녀를 보기 위해 엄청난 갤러리가 몰려들었다. 그랜드슬래머 박인비는 과연 경기에서 어떤 클럽을 사용하며 라운드 때는 몇 개의 공을 소모할까. 경기를 앞두고 박인비에게 평소 독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것들을 확인했다.

Q. 한번 라운드할 때 사용하는 골프공은 몇 개?
A. 박인비는 9개의 골프공을 준비한다. 6개는 새 골프공, 3개는 사용했던 골프공이다. 새 골프공은 경기 중 사용하고 헌 공은 퍼트와 어프로치 연습 때 쓴다. 골프공은 자주 바꾸지 않는다.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으면 18홀 내내 쓸 때도 있다. 경기 후 남은 골프공은 갤러리들에게 나눠준다.

Q. 남편이 꼭 챙겨 가지고 나가는 물건은?
A. 박인비의 옆에는 늘 남편 남기협씨가 있다. 그는 모든 경기를 함께 따라 돈다. 그리고 그는 늘 작은 백팩을 메고 있다. 백팩 속에 무슨 중요한 물건이라도 담겨져 있는 것일까. 생각처럼 중요한 물건은 없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달라진다. 주로 여분의 옷을 챙긴다.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추워졌을 때를 대비해 비옷 또는 겉옷을 챙겨 넣는다. 그 이외엔 자신이 먹을 물과 음료뿐이다.

Q. 라운드 중 사용하는 장갑은 몇 개?
A. 요즘처럼 날씨가 더운 날엔 손에서 땀이 흘러 장갑도 여러 개를 쓰는 선수들이 많다. 박인비는 가방 속에 약 10장 정도의 장갑을 챙겨가지고 다닌다. 장갑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부피가 작기에 많이 넣고 다닐 뿐이다. 경기 중 사용하는 장갑은 한 장이면 충분하다. 찢어지거나 오염되지 않으면 바꿔서 끼지 않는다.

Q. 경기 전 연습시간은?
A. 보통 경기 시작 1시간 20분전에 클럽하우스에 도착한다. 연습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40분 동안 드라이빙레인지에서 스윙을 점검하고 그 다음 퍼트와 어프로치를 20분씩 한 뒤 경기를 시작한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샷 연습보다 퍼트 연습을 하고 마무리하는 편이다.

Q. 클럽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 박인비는 일본 던롭스포츠의 스릭슨 제품을 사용한다. 2012년부터 이 제품을 사용했고, 그 전에는 캘러웨이의 아이언과 여러 브랜드의 드라이버를 번갈아 썼다. 드라이버나 우드에 비해 아이언을 교체할 때 신중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리다. 프로들은 주로 단조 아이언을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박인비는 그렇지 않다. 과거엔 거리를 조금 더 보내기 위해서 캘러웨이의 디아블로 아이언(솔이 넓은 아마추어용 제품)을 쓰기도 했다. 스릭슨의 아이언으로 교체할 때도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은 모두 일본에서 직접 제작했다. 골프공도 일본에서 직접 보내온다.

Q. 클럽 세팅은?
A. 14개의 클럽은 드라이버와 우드 2개, 유틸리티 클럽 2개 그리고 6번부터 9번 아이언과 46·50·57도 3개의 웨지와 퍼터로 구성됐다. 클럽 세팅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브리티시여자오픈 때는 유틸리티 클럽을 1개로 줄이고 대신 5번 아이언을 넣었다. 강한 바람에 대비한 클럽 구성이었다.

Q. 쇼트게임 때 주로 사용하는 웨지는?
A. 3개의 웨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럽은 57도다.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할 때와 벙커에서 주로 57도를 사용한다. 46도와 50도, 57도로 구성한 이유는 풀 스윙을 했을 때 거리 편차를 고려했다. 50도는 100야드, 46도는 110야드, 57도는 80야드를 보낸다. 참고로 드라이버는 던롭의 젝시오8(로드프 10.5도, 샤프트 Tour AD MJ-6 SR)을 사용 중이다.

Q. 마지막 날에는 흰옷만 입는다?
A. 박인비는 흰색을 좋아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신혼집에는 벽지와 커튼 등 소품까지도 흰색으로 꾸며놓았을 정도다. 마지막 날 흰색의 옷을 즐겨 입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 때는 검은색 줄무늬 셔츠에 파란색 조끼를 입고 경기했다.

제주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박인비가 9일 제주 오라골프장에서 열린 KLPGA투어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3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연습장에서 다양한 클럽으로 스윙하면서 샷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 | 주영로 기자

9일 삼다수마스터스 최종3라운드에서 연장 접전 끝에 박소연을 꺾고 4년 만에 우승컵을 안은 이정은(오른쪽). 사진제공 | KLPGA

박인비 국내 첫 우승 불발

이정은, KLPGA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무더위에 박인비(27·KB금융그룹)도 지쳤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뒤 국내 골프팬들 앞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던 그의 바람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인비는 9일 제주 오라골프장(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와 보기를 3개씩 주고받은 끝에 이븐파 72타를 쳐 합계 2언더파 214타를 쳤다.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친 박인비는 국내 대회 14번째 출전에서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찜통 같은 무더위 탓인지 잦은 실수에 발목을 잡혔다. 출발부터 좋지 못했다. 1번홀(파4)에서 짧은 거리의 파 퍼트를 놓치면서 보기로 시작했다. 이어 2번(파4)과 4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8번홀(파3)에서 다시 퍼트 실수를 하면서 보기를 적어냈다. 좀처럼 박인비에게서 볼 수 없는 실수가 되풀이 됐다. 후반에도 버디와 보기를 1개씩 기록한 박인비는 타수를 줄이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

박인비로서는 아쉬운 경기다. 4일(한국시간)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선수 최초이자 LPGA 역대 7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귀국한 그는 국내 팬들 앞에서도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대회 첫날 5언더파를 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2라운드 6번홀(파5)에서 올해 첫 트리플 보기를 기록하는 등 샷 난조 끝에 3타를 잃었다. 이날 만회를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기를 마친 박인비는 "짧은 거리의 퍼트 실수가 2번이나 나와서 아쉬웠다"면서 "특히 파5 홀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 파5 홀에서만 2오버파를 했다. 프로선수들에게 파5 홀은 반드시 버디를 잡아야 하는 홀인데 이번 대회에선 실수가 많았다. 최근 경기했던 대회 중 파5 홀에서의 성적은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까지 5주 연속 강행군을 펼친 박인비는 21일부터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리는 캐나다여자오픈까지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박인비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속이 시원하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강아지랑 놀면서 뒹굴뒹굴하고 싶다"며 모처럼의 휴가에 들떴다.

한편 이날 열린 대회에선 이정은(27·교촌치킨)이 연장 접전 끝에 박소연(23)을 꺾고 4년 만에 우승했다. 나란히 6언더파 210타를 적어내 연장전에 돌입했고, 18번홀(파4)에서 펼쳐진 1차 연장에서 이정은이 두 번째 샷을 약 1.5m 거리에 붙인 뒤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 | 주영로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이보미, 메이지컵 공동 3위 JLPGA 상금랭킹 1위 수성

이보미(27)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지컵(총상금 9000만엔)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상금왕 등극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이보미는 9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인터내셔널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3개를 적어내며 3언더파 69타를 쳤다. 합계 7언더파 209타를 기록한 이보미는 펑샨샨(중국)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공동선두로 경기를 끝내 연장전에 돌입한 니시야마 유카이, 스즈키 아이와는 1타 차였다. 시즌 2승을 기록 중인 이보미는 2주 연속 1타 차로 우승을 놓쳤다. 그러나 이날 3위에 오르면서 시즌 14번째 톱10을 기록했고, 상금을 1억2094만엔으로 늘려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니시야마 유카리가 연장전 끝에 우승했고 대회 2연패를 노린 신지애(27)는 합계 6언더파 210타를 쳐 5위, 안선주(28)는 8위(4언더파 212타)에 올랐다. 주영로 기자

강한남자 빅맨
커지고! 단단하고! 오~~래간다!
강한남자로 변신 시켜주는
빅맨(Big Man)
발기력! 조루! 파워!
성기능강화!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자신감 회복!
제품구입문의 010-3185-4999

고개숙인 남성 "썬터치"가 인기!
■광고사전 심의필증 심의번호 2008-97-09-0065
〈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 취득〉
· 제조허가 no 제802호
· 품목허가 no 제2000-1호
최근 만년필처럼 생긴 "썬터치"(발기 유발제 약물주입기)가 큰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직접 주사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여 왔었는데 이를 '썬터치'라는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썬터치"는 버튼 하나로 간단히 약물(약물은 병,의원에서 처방함)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의료기기이고 볼펜처럼 작아 휴대가 편하다. 또한 조직이 쉬워서 누구든지 편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점이 제품의 장점이다.(약물 효능은 병,의원으로 문의)
문의 (서울)02-2279-4657
(부산)051-808-7411 BT코리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419-중-42065호
당당한 자신감!
남성 수술 상담
음경 길이 + 귀두 조루수술
★주사요법 확대
★대체 진피이식술
★포경 · 무도정관수술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음경만곡증 (성기휨) 교정술
★발기부전수술 (굴곡형.평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
합리적인 비용
적은흉터 최소절개
풍부한 경험
※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477-7523
위치 :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

나만의 여인
(공기인형) 신장 160cm
당신에게... 황홀한 변화가 온다.
신용카드 6개월 무이자 가능
외로운 남성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
가격부담을 속시원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내구성이 강화된 튼튼하고 부드러운 탄력성이 아주 우수한 제품.
사용하시기 편한 자세로 완성된 제품.
인생을 즐겁게 누리세요~~!
남성 도우미 걸
※ 남성 도우미 걸, 음이온과 무독성 실리콘으로 만든 최초 남성고민 신제품 (두 종류 무료증정)/ 별도판매 가능
고려물산 공장직영 판매!
무료전화 1599-2151
010-5608-1237
농협 : 302-0895-9522-41 고려물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426-중-42371
강한 男子
음경 확대 · 귀두 확대 · 조루 치료 · 발기 부전
● 미세자가지방 이식술
● 주사요법 확대술
● 대체진피 이식술
● 정관 · 포경수술
●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 각종보형물 삽입술
열린상담 · 풍부한 경험 · 합리적인 비용
발기부전 임플란트 시술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대일남성의원을 검색해보세요!
24시간 상담 대일남성의원
(代) 02) 444-1233
※일요일 · 공휴일 · 야간 예약 수술 가능
※5 · 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농협 2층